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옥 성 수
부산경제진흥원 경제동향분석센터장

비트코인과 세계화폐

수 있다.

그 하나는 “지금과 같은 비트코인 가격의 폭등은 거품이 아닌가?” 하는 것인데,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은 비교적 쉽다. 비트코인처럼 수요에 맞춰 공급을 늘릴 수 없는 재화는 우발적인 뉴스에 따라 가격이 폭등했다가 급락하는 폭등·폭락 주기를 일으키기 쉽다. 폭등가격을 통상 ‘거품’이라고 한다.

공급이 제한된 재화의 경우 어떤 계기로 균형가격 위에서 가격이 생성되면 추가적인 가격상승을 기대하면서 추가적으로 재화를 확보하고자 하는 초과수요상태가 형성되어 가격이 계속 상승하게 되고,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초과공급 상태가 형성되어 계속 하락하게 된다. 이는 부동산, 귀금속, 고마술품 등 신규공급이 제한되고 기존스톡 거래 위주의 시장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실제로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4월 일주일 새 30% 수준으로 급락하기도 하였으며 최근에만 하여도 지난 7월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을 주도한 중국의 포털사이트 바이두에서 비트코인 결제 중단 발표 직후 이를 만에 가격이 절반 이하로 폭락하였다. 이러한 가격의 불안정성이 비트코인의 화폐로서의 가능성에 치명적인 결격사유라고 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비트코인은 ‘미래화폐’로서 기능할 것인가?”라는 물음이다. 여기에 대

해서는 세계적인 석학들 간에도 의견이 갈라지고 있다.

우선 벤 버냉키 FRB 의장은 미국 상원청문회에 제출한 서신에서 “비트코인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빠르고 안전하며 효율적인 지급 시스템이 될 수 있다”고 밝힘으로써 11월 중 비트코인 가격등급의 한 계기를 제공한 바가 있다.

반면, 그린스펀 전 의장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화폐의 본질 가치, 발행 주체의 신용이나 신뢰 등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자본 능력이 결여”돼 있으므로 “비트코인 열풍은 버블”이라고 평가하였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는 “비트코인에 열광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화폐 발행의 권한을 남용한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받아들이거나라는 협정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평가하였다. 시장에는 초기에는 비트코인에 열광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화폐 발행의 권한을 남용한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받아들이거나라는 협정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평가하였다.

현 단계 비트코인 열풍 속에서 얹어내야 할 세계화폐의 비전과 방향성은 크루그먼 교수의 비판 속에 포함된 ‘정부의 화폐발행권’의 남용에 대한 우려’와 ‘사람들이 받아줄 것이라는 믿음’이 비트코인의 원동력이며 ‘디플레이션의 가능성’이 극복해야 할 과제라

는 점을 인식하는데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비트코인이 발명된 2009년은 미연준(FRB)이 막대한 양의 달러를 찍어내 시장에 공급하는 양적완화가 시작된 해로, 달러화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중앙은행이 화폐 발행을 독점하고, 자의적인 통화정책을 펴는 것에 대한 반발을 담고 있는 비트코인이 대안 화폐로 주목받기 시작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비트코인이 시사하는 세계 화폐의 비전은 의외로 간단하다. 그것은 IMF 특별인출권(SDR)을 비트코인처럼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한 디지털현금 형태로 개발하여 유통시키는 것이다. 디지털 SDR과 교환된 각국의 화폐는 다시 각국의 국채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으로 인류의 복지를 위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크루그먼과 그린스펀이 지적한 문제점도 해소되고 환전의 필요가 없이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명실상부한 세계화폐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강력한 대체제의 등장으로 비트코인도 가격 거품이 제거되고 안정적인 투자자산으로 자리리를 잡을 것이며, 이에 따라 금융기관 등을 통한 거래가 활성화되면 비로소 제대로 된 ‘화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社說

지역정치권, 국책예산 확보 총력 쏟아야

광주시와 전남도가 정부에 요구한 내년도 국책예산 가운데 반영되지 않은 현안사업 예산이 8034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광주시는 광주도심 천 생태복원 등 21건의 현안사업을 위해 4023억 원을 요청했지만 정부에는 2166억 원 반영됐다.

이 가운데 지난해 예산은 일부 신규사업은 예산이 한 편도 반영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게 됐다. 시는 또 클린디젤 자동차 핵심부품 산업 등 12건의 사업에 대해 증액을 요구했으나 ‘절감’ 반영에 그쳐 추가 예산 확보가 결실한 상황이다.

전남도 역시 현안사업 14건에 대해 7391억 원의 예산을 요청했지만 정부안에 반영된 것은 1523억 원으로, 5868억 원이 미반영됐다.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개최 등의 예산은 누락됐고, 남해 안철도 고속화 및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 여수세계박람회 사후 활용 예산도 미미한 수준의 반영에 그쳤다.

따라서 민주당과 지역 국회의원들은 비롯한 정치권의 노력이 절대적이다. 여의치 않다면 광주·전남 출신 타지역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정책간담회를 열고, 예결위원 등을 만나 협조 요청에 나섰지만 여건이 만만치는 않다. 예산 안 계수 조정위원회 가운데 이 지역에서 임대현 의원(광주 북구)이 유일하다.

따라서 민주당과 지역 국회의원들은 비롯한 정치권의 노력이 절대적이다. 여의치 않다면 광주·전남 출신 타지역 국회의원들을 적극 동원할 필요가 있다. 새누리당도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걸었던 공약이 헛구호가 아니라는 것은 행동으로 증명해야 할 것이다.

소외계층 겨울나기 대책 한시가 급하다

기운이 뚝 떨어지면서 아침 저녁으로 몸을 움츠리게 하는 매서운 바람이 겨울을 실감케 한다. 하지만 이 겨울바람보다 더 시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다. 당장 하루하루 사는 것을 걱정해야하는 소년·소녀가장, 독거 노인 등은 겨울나기가 혹독하기만 하다.

한겨울을 제거하더라도 간의 담즙 생성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소화 기능에 지장은 없다. 하지만 담즙 분비에 일시적인 변화가 생겨 일부 환자에서 수술 후 소화 불량, 트림, 설사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좋아진다. 만약 수술후에도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다른 질환이나 다른 장기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담즙증 예방하려면 알맞은 분량의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고, 적절한 운동으로 체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름기가 많은 식품은 피하고, 음식을 조리할 때 기름류의 사용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 가급적이면 소, 돼지기름, 내장류, 오징어, 새우, 달걀 노른자 등 클레스테롤이나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은 피하고 곡류, 야채, 과일 등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이러다 보니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조차 누리지 못하다가 극단적인 선택하기도 한다. 지난달 목포 노부부 동반자살과 같은 경우가 그렇다. 이들 부부는 방문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알지 못하고,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했다.

하지만 남아공 케이프타운 앞 바다 외판로번섬 감옥에서의 17년을 비롯해 28년의 수형생활도 그의 신념과 소망을 끊지 못했다. 지난 1990년 72세의 나이로 석방이 된 만델라는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며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계속 할 것임을 세상에 알렸다.

그는 강철같은 의지와 불굴의 신념으로 흑백 차별정책을 종식시켰고, 남아공에서 인종 차별이 없는 최초의 민주선거를 실시해 대통령에 당선됐다. 대통령이 된 만델라는 ‘진실과 화해 위원회’를 설치해 과거에 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청문회에 나와 진실을 날김없이 고백하면 모든 죄를 용서하겠다는 대사면의 위대한 결정을 단행했다.

이로 인해 남아공을 모든 인종, 피해자와 가해자에 어울려 사는 화해의 나라로 바꾸어 놓았다. 이 위원회는 이후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과의 진상 규명의 모델로 활용되고 있다.

지역·세대·계층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우리에게 만델리의 화해와 통합의 메시지는 꼭 배워야 할 유산이다. /최재호 경제부장 lion@kwangju.co.kr

無等鼓

‘자유를 향한 길고도 면 여성’ 세계 인권운동의 상장’ 웰스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영결식에 모두 91개국 정상과 10여명의 전직 국가 수반이 참석했다. 이는 지난 2005년 고령 요한 바오로 2세 장례식 당시 참석한 70여 개국 정상을 웃써 웃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남아공은 물론이고, 세계 각국이 만델라의 태계에 추모와 애도를 보내는 이유는 뭘까?

만델라는 한 시대를 대표하는 ‘행동하는 양심’이자 세계적 정치지도자로서 인류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의 세상을 위한 투쟁과 헌신의 세월을 살다 95세로 세상을 떠난 20세기 마지막 영웅이기 때문이다.

봉사 다녀온 지 며칠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들의 마음에는 캄퐁스튜의 맑은 하늘 아래 펼쳐진 신명나는 둘째미당이 눈에 선하다. 어려운 환경이지만 해맑은 미소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들이 벌써 그리워지는 것은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더 많은 나눔을 실천해 사랑으로 우리는 그들을 펼쳐야 할 때라 생각한다. 캄퐁스튜에 세워진 광주진료소와 마당에 파놓은 우물, 그곳에서 더 큰 사랑이 퍼져나가기를 기대해본다.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민화, 만화 등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8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创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 《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내 《대표 FAX 222-4918》 경제부 2200-663 《F A X 222-8005》 《F A X 222-0159》

편집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F A X 227-9600》 《F A X 2200-651》

정치부 2200-612 여론제작부 2200-62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체육부 2200-697 《F A X 222-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사전부 2200-693 《F A X 2200-556》 《F A X 227-9335》

《대표 FAX 222-4267》 사후부 2200-571 《F A X 2200-555》 《F A X 227-9335》

경영지원부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59》 《F A X 227-9500》

기획부 222-4918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59》 《F A X 227-9500》

기획부 222-4918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59》 《F A X 227-9500》

기획부 222-4918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59》 《F A X 227-9500》

기획부 222-4918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59》 《F A X 227-9500》

기획부 222-4918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59》 《F A X 227-9500》

기획부 222-4918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59》 《F A X 227-9500》

기획부 222-4918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59》 《F A X 227-9500》

기획부 222-4918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59》 《F A X 227-9500》

기획부 222-4918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59》 《F A X 227-9500》

기획부 222-4918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59》 《F A X 227-9500》

기획부 222-4918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59》 《F A X 227-9500》

기획부 222-4918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59》 《F A X 227-9500》

기획부 222-4918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59》 《F A X 227-9500》

기획부 222-4918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59》 《F A X 227-9500》

기획부 222-4918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59》 《F A X 227-9500》

기획부 222-4918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59》 《F A X 227-9500》

기획부 222-4918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59》 《F A X 227-9500》

기획부 222-4918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59》 《F A X 227-9500》

기획부 222-4918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59》 《F A X 227-9500》

기획부 222-4918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59》 《F A X 227-9500》

기획부 222-4918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59》 《F A X 227-9500》

기획부 222-4918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59》 《F A X 227-9500》

기획부